**페스트 – 5주차 논제**

**자유논제**

**Q1.** **오랑 시는 페스트 사태를 선언하고 도시를 폐쇄하였습니다. 이처럼 감염병을 이유로 도시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
| --- |
| *시의 문을 폐쇄함으로써 생긴 가장 뚜렷한 결과들 중의 하나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었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이별을 맞게 된 것이었다. p.175 ... 이 질병의 무지막지한 침범은, 그 첫 결과로서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사적인 감정 같은 것은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다. ... 우리에게는 편지를 쓴다는 사소한 기쁨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p.176* |

**폐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갇힌 사람들에게는 잔인하고 몰상식한 대처 방식일 수 있겠지만, 그 나라의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갈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한 대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력은 쓰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못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주어야 사람들이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폐쇄를 하기 때문에 식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2.** **랑베르는 타루가 리외의 부인이 요양소에 있다는 것을 말하자 전에는 거절했던 보건위생대 일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랑베르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생각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 |
| *타루는 그를 따라갔으나 문을 나서는 순간 생각이 바뀐 듯, 신문기자 쪽으로 몸을 돌리며 이렇게 말했다.*  *“리외의 부인이 여기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요양소에 있다는 걸 아나요?”*  *랑베르는 놀란 몸짓을 했지만 타루는 이미 떠났다.*  *이튿날 꼭두새벽에 랑베르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가 시를 떠날 방도를 찾을 때까지 함께 일하는 걸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

**리외도 자신과 같은 처지인데도 자신과 다른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묵묵히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반성하게 되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택논제**

**Q1. 페스트는 공동체가 똑같이, 공평하게 겪는 고통이다. 페스트는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에게도, 판사에게도 범죄자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런 공동체의 고통을 함께 극복하면서, 리위는 “하느님조차 이제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p362) 라고 말합니다. 공동체의 연대, 유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고통을 겪으면 사람들은 모두 연대하고 유대하게 될까요? 소설는 반대의 사례도 나옵니다. 코로나 시국을 겪으며 변화된 우리 사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띈다고 생각하나요? 또 코로나 이후 이전과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으며 무엇을 었었을까요?**

|  |
| --- |
|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식량 보급이 어려운 지경에 이름에 따라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불안한 문제점들이 생겨난다. 게다가 투기가 성행해서 일반 시장에 부족하지만 가장 긴요한 생활 필수품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팔렸다. 그래서 빈곤한 가정은 무척 괴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나, 반면에 부유한 가정들은 부족한 것이라곤 거의 없었다. 페스트가 그 역할에서 보여준 것 같은 효과적 공평성으로 말미암아 시민들 사이에 평등이 강화될 수도 있었을 텐데, 페스트는 저마다의 이기심을 발동시킴으로써 오히려 인간의 마음속에 불공평의 감정만 과격하게 만들었다. (p.183)* |

**유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힘든 상황에 더 남을 헐뜯으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고 느낀다. 코로나 이후에 잠깐동안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두 사람 많은 곳을 피해다녔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안쓰고 다니거나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아무 죄책감 없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Q2. 랑베르는 페스트가 퍼진 나라에 억류된 여행자였습니다. 도시가 폐쇄되어버린 상황에서 고향에 돌아갈 수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내가 리유의 입장이라면, 랑베르에게 증명서를 써줄 것인가요?**

|  |
| --- |
| *랑베르가 말을 이었다. “저는 단지 선생님(리유)께, 제가 그 고약한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한 장 써 주실 수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략)*  *“나는 그 증명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나는 선생이 병에 걸려 있는지 어떤지도 모를 뿐더러, 비록 안다고 하더라고 내 진찰실을 나가는 순간부터 도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전염이 안 된다고 증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

**절대 써주지 않을 것 같다. 일단 리외는 랑베르와 같은 입장인데도 나중에 보건대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이성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랑베르에게 증명서를 써주지는 않을 것 같다.**

**자유논제 1**

**페스트가 전염되고 있다고 발표를 한 뒤에도 사람들은 설마 페스트가 또 생겼겠냐고 의심하며 잘 믿지 않습니다. 의사는 페스트가 전염되고 있다고 하고 다른 여론들에서는 페스트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페스트’ 라는 단어가 이제 막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사실 재앙은 모두가 다 겪는 것인데도, 그것이 자기에게 닥치면 여간해서는 믿지 못하게 된다. (50p)*

**선택논제 1**

**페스트가 전염되는 상황을 보면서 현재 우리사회의 코로나 시국이 많이 생각났었는데,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혹은 정말 가까운 지인이 페스트나 코로나 같은 무서운 전염병에 걸리게 되면 진심으로 안타까워 하는 마음과 조심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 중 어떤 마음이 더 많이 들까요?**

**추가 논제 (답변 업로드 필수x)**

**Q1. 페스트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왜 전염병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  |
| --- |
| *이처럼 오랑 시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했다. 보행자들의 수는 현저하게 늘었으며, 심지어 대낮의 한산한 시간에도 가게의 휴업이나 몇몇 사무실들의 휴무로 할 일이 없어진 많은 사람들이 거리와 카페에 득실거리고 있었다. ….즐거운 잔치에 참가하고 있는 축제의 도시와도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

**Q2 소설 속 페스트 상황에서 페스트와 싸우는 보건대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요?**

|  |
| --- |
| *그는 리외에게 보건대 일은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물었다. 현재 다섯 개 반이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 몇 개 반이 더 생길 것 같았다. ... "저도 그 조직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같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저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p.294 ... "나는 어떤 것이 내 직분인지를 모르겠어요. 어쩌면 사랑을 택한 것이 잘못일지도 모르겠군요." p.296* |